

石油類와 被傭者報酬가 水産業에 미치는 影響分析

朱 尤 一

責任研究員, 水産開發研究室

辛 英 泰

研究員, 水産開發研究室

- I. 問題의 提起
- II. 研究方法과 範圍
- III. 石油製品
- IV. 被傭者報酬
- V. 要約 및 結語

I. 問題의 提起

水産業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국의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낮으며, 흔히 斜陽化되고 있는 産業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水産人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지난 십 수년간 遠漁洋業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水産業이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의 水産大國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몇 차례의 큰 진통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73年末의 제 1차 오일 쇼크, 각국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로 인한 遠洋漁場의 상실, 그리고 1979년 中半期에 밀어닥친 제 2차 오일 쇼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앞에 든 國外的인 要因 말고도, 비단 水産業에 국한된 것은 아

니나, 國內的인 要因으로서 賃金上昇 등으로 인하여 水産業의 經營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水産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部門인 石油類와 被傭者報酬를 중심으로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몇 가지 分析을 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과 範圍

本研究에서는 기본적으로 韓國銀行에서 발표한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970年 産業聯關表(1974年 4월에 公表), 1973年 産業聯關表(1975年 8월에 公表), 1975年 産業聯關表(1978年 6월에 公表)의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하였다. 즉 1970, 1973, 1975 各年度別로 몇몇 水産部門에 대한 石油類와 被傭者報酬의 投入額을 위에서 든 産業聯關表로부터 추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直接效果, 間接效果 및 기타 必要한 사항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였다.

1975年 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하여 産業部門의 分類體系를 살펴보면 全産業은 60—統合部門,

164—統合部門 및 392—基本部門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이같은 세 가지 체계별 水産部門에 대한 分類를 보면 60—統合部門에서는 水産物로 표시되어 있고, 164—統合部門에서는 水産漁獲과 水産養殖의 둘로 分類하고 있다.

또 392—基本部門 分類에 있어서는 沿近海漁獲, 遠洋漁獲, 捕鯨, 內水面漁獲, 淺海養殖, 內水面養殖의 여섯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앞의 넷은 164—統合部門의 水産漁獲에 포함되는 部分이며, 뒤의 둘은 水産養殖에 포함되는 部門을 細分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分析에서는 위의 6가지 基本水産部門 가운데 捕鯨, 內水面漁獲, 內水面養殖은 全水産部門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아주 작으므로 다루지 않고, 沿近海漁獲, 遠洋漁獲, 淺海養殖의 3가지 基本水産部門만을 分析對象으로 하기로 한다.

水産製造業分野는 60—統合部門과 164—統合部門에서는 水産加工이라는 單一部門으로, 392—基本部門에서는 水産통조림, 水産食品, 水産貯藏品の 넷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産業聯關表上的 水産業分類는 水産業法上 水産業을 漁業과 水産製造業으로 大別하고, 漁業은 다시 漁撈와 養殖業으로 분류하는 체계와 用語上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주로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分析하였으므로 편의상 모든 用語는 産業聯關表上的 用語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1975年 産業聯關表에 의하면 石油類는 60—統合部門이나 164—統合部門에서는 모두 石油製品으로 표시하고 있고, 392—基本部門 分類에서는 이것을 나프타, 揮發油, 燃料油, 潤滑油, 其他石油製品의 5 가지로 분류,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뜻하는 石油製品이란 石油類

表 1 水産部門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各部門*의 投入額 및 그 投入係數(1975年值)

部 門 別	投入額(百萬圓)	投入係數
石 油 製 品	53,616.0	0.169687
商 業	13,476.5	0.042651
輸 送 用 機 械	7,861.5	0.024881
金 融 및 保 險	7,639.7	0.024179
纖 維 製 品	7,574.7	0.023973
水 産 物	7,101.4	0.022475
一 般 機 械	5,049.8	0.015982
運 輸 및 保 管	5,041.3	0.015955
家計外消費支出	4,725.8	0.014956
其他食料品	3,518.2	0.011135
中間投入計	135,924.7	0.430182
被傭者報酬	83,966.6	0.265742
其他附加價値	56,470.9	0.178722
資本消耗充當金	38,827.5	0.122884
間接稅一補助金	780.2	0.002469
附加價値計	180,045.2	0.569818
總 投 入 額	315,969.9	1.000000

*10大部門만을 대표적으로 表示하였음.

資料: 韓國銀行, 「1975年 産業聯關表(Ⅱ)」, 1978.

자체에 국한된다.

被傭者報酬는 60—統合部門이나 164—統合部門, 392—基本部門의 모든 産業分類方式에서 다 같이 被傭者報酬라고 나타내고 있다.

本稿에서는 石油製品 및 被傭者報酬가 각 水産部門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것을 研究의 範圍로 하고 있는데, 이는 石油製品과 被傭者報酬가 水産業에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1975年 産業聯關表를 통하여 살펴보면 <表1>과 같다. 즉 60個 産業部門中, 水産物部門에 影響을 미치는 中間投入財部門은 총 46개 部門이며, 이 중 石油製品의 投入係數가 0.169687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商業部門으로서 投入係數는 0.042651이다. 한편 附加價値部門에서는 被傭者報酬의 投入係數가 0.26574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其他附加價値의 投入係數 0.178722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水産物部門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서 당연히 石油製品과 被傭者報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Ⅲ. 石油製品

1. 石油製品の 各水産部門에 대한 波及效果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매우 빈약하며 특히 石油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對外指向的 加工貿易型의 經濟開發政策을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貿易依存度는 점차 높아져 1973년에 50%를 초과하였고, 1978년에는 60.5%에 달하였다. 따라서 「海外인플레이」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그 波及時差 또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海外인플레이는 國內物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며 더구나 石油製品의 경우에 있어서는 油價가 앞으로 계속 上昇할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73~1975년의 全産業 年平均 都賣物價上昇率은 25.2%인데 반해, 水産食品의 年平均 都賣物價上昇率은 17.1%를 보이고 있다(表 2). 이 期間(1973~75年)에 제 1차 油價 쇼크가 발생하고 또 그 영향을 완전히 흡수하였다고 前提할 경우, 都賣物價는 제 1차 油價 쇼크로 인한 油價上昇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水産業은 他産業에 비하여 海外인플레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심적인 문제로서 石油製品價格變動이 水産業의 生産費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表 2 農水産食品의 年平均 價格上昇動向

단위 : %

年 度	都賣物價	農水産品	農水産品外	水産食品
1973	6.9	2.4	7.9	9.9
1974	42.1	27.7	45.1	10.9
1975	26.6	41.6	23.8	30.5
73~75年平均	25.2	23.9	25.6	17.1

資料 : 韓國銀行, 「物價總覽」, 1977.

石油製品 즉 石油類 價格은 1973年末을 기해서 평균 약 70% 上昇했다. 그 후 계속하여 소폭으로 몇 차례 上昇했으며, 1979年 7月 10日을 기해서 또 다시 石油製品價格이 59.2%나 대폭 上昇되어 제 2차 油價 쇼크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水産業協同組合을 통해 공급되는 漁業用 免稅油類도 58.5% 上昇되었다. 이러한 漁業用 油類의 年別 價格引上 內容은 <表 3>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漁業用 油類 供給에 水産業協同組合이 関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5年 5月 1日부터였다. 처음에는 水協供給價格과 市販價格에 차이가 없었으나 1972年 1月 1日을 기하여 漁業用 免稅油類를 供給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供給품목도 처음에는 重油·輕油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2년에 들어서서 B.A油(방카A油), 그리고 1978년에는 이에 M·D油(海上디젤油)까지 供給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水協이 주관하여 漁業用 免稅油類를 供給해 왔는데, 이것이 그 동안 沿近海漁業의 發展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石油製品이 各水産業部門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어떠한가? 이를 알기 위하여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計算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表 4>이다. 表에 의하면 各水産業部門에 대해 石油製品이 미치는 波及效果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總投入額으로 표시된 것은 中間投入財와 附加價值를 합한 金額을 말하며, 直接效果는 石油製品에 투입되는 費用分析에 의한 波及效果, 間接效果는 水産物의 生産에 투입되는 中間財들에 대하여 石油製品이 미치는 波及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總效果는 直接效果와 間接效果를 합한 개념이다. 表에 의하여 이러한 石油製品이 各水産部門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石

表 3 漁業用油類價格變動

단위: 원/D/M

區分 引上日字	油種	水協價格		市販價格		備考
		購入	販賣	購入	販賣	
70. 3. 7	重油	1,426	1,595	1,426	1,595	課稅
	輕油	2,264	2,480	2,264	2,480	
71. 6. 2	重油	1,716	1,892	1,716	1,892	"
	輕油	2,706	2,947	2,706	2,947	
71. 8. 20	重油	2,076	2,315	2,076	2,315	"
	輕油	3,274	3,661	3,274	3,661	
72. 1. 1	重油	2,194	2,505	2,590	2,936	免稅
	輕油	2,958	3,339	4,054	4,456	
	B.A.油	2,454	2,787	2,902	3,246	
73. 8. 8	重油	2,420	2,704	2,620	3,254	"
	輕油	3,314	3,658	4,988	5,850	
	B.A.油	2,710	3,014	2,682	3,600	
73. 12. 7	重油	3,036	3,355	3,600	4,082	"
	輕油	4,180	4,574	5,764	6,386	
	B.A.油	3,408	3,752	4,046	4,526	
74. 2. 1	重油	5,148	5,553	6,134	6,870	"
	輕油	7,150	7,661	9,922	10,864	
	B.A.油	5,800	6,240	6,916	7,648	
74. 4. 8	重油	5,714	6,149	6,814	7,584	"
	輕油	7,946	8,501	11,038	12,012	
	B.A.油	6,442	6,915	7,688	8,454	
74. 12. 7	重油	7,560	8,093	9,028	9,876	"
	輕油	7,896	8,447	10,970	11,956	
	B.A.油	7,730	8,273	9,232	10,068	
75. 11. 21	重油	8,250	8,742	9,848	10,750	"
	輕油	8,616	9,125	11,962	12,998	
	B.A.油	8,434	8,935	10,070	10,958	
77. 5. 20	重油	8,592	9,099	10,258	11,196	"
	輕油	8,974	9,498	12,464	13,534	
	B.A.油	8,784	9,300	10,490	10,952	
77. 7. 1	重油	9,350	9,855	9,350	10,172	附加價值稅課 特別消費稅免
	輕油	9,754	10,276	10,728	11,660	
	B.A.油	9,852	10,096	9,582	10,386	
78. 1. 1	重油	8,500	8,969	9,350	10,172	附加價值稅免

	輕油	8,868	9,352	10,730	11,662	特別消費稅免
	B.A.油	8,712	9,189	9,583	10,368	
78. 1. 28	重油	8,870	9,355	9,758	10,640	"
	輕油	9,404	9,911	11,382	12,356	
	B.A.油	9,180	9,678	10,098	10,962	
	M.D.油	9,330	9,835	11,194	12,156	
79. 3. 7	重油	9,698	10,186	9,698	10,186	"
	輕油	10,092	10,806	10,296	10,806	
	B.A.油	10,042	10,543	10,142	10,543	
	M.D.油	10,212	10,719	10,212	10,719	
79. 7. 10	重油	15,438	16,144	15,438	16,144	"
	輕油	16,390	17,132	16,390	17,132	
	B.A.油	15,986	16,712	15,986	16,712	
	M.D.油	16,256	16,993	16,256	16,993	

資料: 水協中央會 購買部.

油製品의 水產物部門(表에서 1로 表示된 部門)에 대한 總效果는 1970年, 1973年, 1975年에 각각 7.8%, 10.6%, 18.8%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대부분 直接效果의 상승에 기인한다. 또 水產物部門을 水產漁獲部門과 水產養殖部門(表에서 1, 2로 表示된 部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水產漁獲部門에 있어서는, 同期間 그 比率이 8.7%, 12.0%, 20.9%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水產漁獲部門 中에서도 沿近海漁業部門(①로 表示된 部門)은 同期間 9.2%, 12.9% 16.3%의 증가세를 보이고, 遠洋漁獲部門(②로 表示)은 그 비율이 6.9%, 11.1%, 26.8%로 매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水產養殖部門에 있어서는 그 比率은 각각 1.4%, 1.4%, 2.0%로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그 절대치도 水產漁獲部門에 비하여 매우 작다. 즉 石油製品의 波及效果는 水產漁獲部門(1)에서는 매우 크고, 水產養殖部門(2)에서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石油製品이 水產漁獲部門에서 소비되는 比重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表 4 總生産費投入中 石油製品이 各 水産業部門에 미치는 效果

단위 : 百萬元, %

	1970年				1973年				1975年			
	總投入費	總效果	直接效果	間接效果	總投入費	總效果	直接效果	間接效果	總投入費	總效果	直接效果	間接效果
水産物(I)	65,742.8	5,134.3	4,608.4	525.9	172,480.1	18,282.9	16,772.1	1,510.8	315,969.9	59,402.3	53,616.0	5,786.3
%	100.0	7.8	7.0	0.8	100.0	10.6	9.7	0.9	100.0	18.8	17.0	1.8
水産加工(II)	20,337.5	854.2	161.9	692.8	39,607.6	2,455.7	402.2	2,053.5	88,187.1	3,703.9	1,685.5	2,018.4
%	100.0	4.2	0.8	3.4	100.0	6.2	1.0	5.2	100.0	4.2	1.9	2.3
水産漁獲(1)	55,180.6	4,800.7	4,478.0	322.7	146,824.4	17,618.9	16,416.3	1,202.6	278,809.8	58,271.2	52,953.8	5,317.4
%	100.0	8.7	8.1	0.6	100.0	12.0	11.0	1.0	100.0	20.9	19.0	1.9
水産養殖(2)	10,562.2	147.9	130.4	17.5	25,655.7	436.1	355.9	80.2	37,160.1	743.2	662.2	81.0
%	100.0	1.4	1.2	0.2	100.0	1.7	1.4	0.3	100.0	2.0	1.8	0.2
水産加工(3)	20,337.5	732.2	161.9	570.3	39,607.6	2,336.8	402.2	1,934.6	88,187.1	9,877.0	1,685.5	8,191.5
%	100.0	3.6	0.8	2.8	100.0	5.9	1.0	4.9	100.0	11.2	1.9	9.3
沿近海漁獲①	42,600.2	3,919.2	3,748.8	170.4	90,813.5	11,714.9	11,079.2	635.7	148,895.0	24,269.9	21,887.6	2,382.3
%	100.0	9.2	8.8	0.4	100.0	12.9	12.2	0.7	100.0	16.3	14.7	1.6
遠洋漁獲②	12,336.9	851.2	727.9	123.3	55,572.0	6,168.5	5,334.9	833.6	128,345.7	396,630.9	313,931.3	3,465.3
%	100.0	6.9	5.9	1.0	100.0	11.1	9.6	1.5	100.0	26.8	24.1	2.7
淺海養殖③	10,553.1	147.7	126.6	21.1	24,694.5	419.8	345.7	74.1	36,553.3	804.2	658.0	146.2
%	100.0	1.4	1.2	0.2	100.0	1.7	1.4	0.3	100.0	2.2	1.8	0.4

資料 : 韓國銀行, 「産業聯關表」, 1970, 1973, 1975에서 作成.

石油製品의 價格變動이 그 生産費에 미치는 영향도 養殖部門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水産漁獲部門은 자체가 가지는 漁撈方法上의 特殊性으로, 즉 주로 漁船을 이용하여 操業을 하게 되므로 자연히 石油製品을 많이 消費하게 되고(이것도 燃料油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養殖部門에서는 그 作業이 水産漁獲部門에 비하여 보다 勞動集約的이므로 石油製品의 消費比率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가 거듭될수록 石油製品의 波及效果가 더욱 커지는데, 이것은 水産漁業部門 자체에 있어서 動力化 및 漁船隻數의 增加로 인한 總噸數의 增大와 油價의 大幅上昇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最近 漁船勢力 推移를 볼 때 動力船은 점차 그 隻數 및 噸數가 증가하고 있고, 無動力船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産業聯關表에 水産物部門과 따로 分類되어 있는 水産加工部門(表 4의 II)에 있어서의 1970,

1973, 1975年度別 石油製品의 總效果를 보면 각각 4.2%, 6.2%, 4.2%로 낮으면서 安定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水産物部門과는 달리 年別로 直接效果보다는 間接效果의 比率이 훨씬 큰데, 이것은 水産加工部門에서는 中間財들에 있어 石油製品의 波及效果가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漁業用免稅油價 58.5% 引上이 水産業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지난 7월 10일의 漁業用免稅油價 58.5% 引上이 水産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油價引上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水産業에 있어 生産費中 石油製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油價引上의 가능성은 尙存하고 있으므로 生産費는 매년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이를 <表 5>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5年 産業聯關表에 따르면 水産物部門에 대한

表 5 漁業用免稅油價 58.5% 引上時 各水產部門에 미치는 영향

	1975年	1975年	B/A	
	總投入額 (A)	石油製品投入額 (B)	引上前	引上後
水產物(I)	315,969.9	59,402.3	18.8	29.8
水產加工(II)	88,187.1	3,703.9	4.2	6.7
水產漁獲(1)	278,809.8	58,271.2	20.9	33.1
水產養殖(2)	37,160.1	743.2	2.0	3.2
水產加工(3)	88,187.1	9,877.0	11.2	17.8
沿近海漁獲①	148,895.0	24,269.9	16.3	25.8
遠洋漁獲②	128,345.7	34,396.6	26.8	42.5
淺海養殖③	36,553.3	804.2	2.2	3.5

資料：韓國銀行, 「1975年 產業聯關表」, 1978.

石油製品의 總波及效果는 18.8%이다. 여기에 油價의 58.5% 引上에 따른 總效果는 $18.8\% \times (1+0.585)$ 로서 29.8%가 된다. 그리하여 漁業用免稅油價의 58.5% 引上에 의해 水產物部門에 있어서 追加로 負擔하여야 할 部分을 比率로 表示하면, 引上後의 總效果와 引上前의 總效果의 差異(29.8-18.8)로서 11.0%가 된다. 다시 말하면 漁業用免稅油價가 58.5% 引上됨으로써 水產物部門의 경우 引上前에는 水產物部門의 總投入額 中에서 18.8%가 石油製品에 의한 投入分이었으나, 引上後에는 29.8%로 그 比重이 높아져 11%를 追加로 더 投入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分析은 7.10 油價引上時의 水產物部門에서의 石油製品 投入比率이 1975年의 比率와 같아야 한다는 假定이 필요하다. 그런데 1975年 以後의 產業聯關表는 아직 發表되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利用 가능한 資料 中에서 最新資料인 1975年 產業聯關表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石油製品 投入比率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9年 현재의 石油製品 投入比率은 1975年의 比率보다 높을 것이고, 따라서 漁業用免稅油價 58.5% 引上에 의한 追加負擔率도 11%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水產漁獲部門에서는 引上後 石油製品의 總投入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33.1%가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沿近海漁獲部門에서는 25.8%를 차지하게 되고, 遠洋漁獲部門에서는 42.5%로 總投入額에 대한 石油製品投入額의 比重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遠洋漁獲部門에 있어 基地船의 경우에는 現地에서 油類를 供給받으므로 漁業用免稅油類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獨航船으로서 國內에서 油類를 供給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水產養殖部門에서는 그 比率이 2.0%에서 3.2%로 上昇하게 되나, 이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油類消費依存度가 낮으므로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3. 7. 10 油價引上에 의한 인플레이效果

마지막으로 一般油價(石油製品價) 59.2% 引上에 의한 物價上昇(인플레이)效果와 漁業用免稅油價 58.5% 引上에 의한 水產業에 있어서의 油價上昇이 全體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 보면 <表 6>과 같다.

表 6 油價上昇에 의한 인플레이效果

	인플레이效果(%)		
	直接效果	間接效果	總效果
計	6.4 ¹⁾	4.6 ²⁾	11.0
水產業部門	0.2	0.02	0.2 ³⁾
非水產業部門	6.2	4.6	10.8

1) 石油 및 石油製品의 都賣物價總指數에 대한 加重值(0.1091) × 59.2%.

2) 部門別中間投入額에 대한 石油製品投入額比重 × 部門別中間投入額의 加重值 × 59.2%의 總合計.

3) 水產部門의 都賣物價總指數에 대한 加重值(0.0194) × 水產部門生產費中 石油製品의 比重(18.4%) × 58.5%.

이 表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난 7.10 油價 引上으로 인한 總인플레이效果는 11.0%인데, 이 중 水產業部門에서 전체 國民經濟에 미치는 인플레이

表 7 總投入額에서 被傭者報酬가 차지하는 比重

단위 : 百萬元

	1970年			1973年			1975年		
	被傭者報酬	總投入額	%	被傭者報酬	總投入額	%	被傭者報酬	總投入額	%
水産物(I)	23,404.5	65,742.8	35.6	37,806.6	172,480.1	21.9	83,966.6	315,969.9	26.6
水産加工(II)	2,917.4	20,337.5	14.3	5,390.2	39,607.6	13.6	9,832.9	88,187.1	11.2
水産漁獲(1)	18,966.3	55,180.6	34.4	30,563.0	146,824.4	20.8	71,927.8	278,809.8	25.8
水産養殖(2)	4,438.2	10,562.2	42.0	7,243.6	25,655.7	28.3	12,038.8	37,160.1	32.4
水産加工(3)	2,917.4	20,337.5	14.3	5,390.2	39,607.6	13.6	9,832.9	88,187.1	11.2
沿近海漁獲 ①	15,980.8	42,600.2	37.5	23,012.0	90,813.5	25.3	51,142.7	148,895.0	34.4
遠洋漁獲 ②	2,937.4	12,336.9	23.8	7,533.6	55,572.0	13.6	20,705.6	128,345.7	16.1
淺海養殖 ③	4,436.5	10,553.1	42.0	7,115.5	24,694.5	28.8	11,871.1	36,553.3	32.5

資料 : 韓國銀行, 「産業關聯表」, 1970, 1973, 1975年.

效果는 0.2%이고, 水産業 이외의 部門에서는 10.8%의 「인플레이效果」를 가져온다고 추정되었다.

IV. 被傭者報酬

1. 水産部門別 被傭者報酬

여기서 被傭者報酬로 表示되고 있는 것은 各水産部門에 종사하는 被傭者들에게 賃金으로 支給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産業關聯表를 이용하여 總投入額 중에서 被傭者報酬로 支給되는 金額 및 그 比率를 나타낸 것이 <表 7>이다. 表에 의하면 水産物部門(I)의 경우, 1970년에는 35.6%, 1973년에는 21.9%, 그리고 1975년에는 26.6%의 總投入額에 대한 被傭者報酬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比率는 1970년에 비해 1973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1975년에 약간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水産漁獲, 水産養殖에서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음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水産物部門 被傭者數가 1970년에 121,200人이던 것이 1973년에 119,500人으로 줄어들었다가 1975년에 131,450人으로 다시 증가한 것에도 重要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表 7>의

各水産部門別 總投入額中 被傭者報酬가 차지하는 比率에서 보면, 水産養殖部門이 他部門에 비하여 가장 큰 값을, 水産漁獲이 中間値를 보이고 있으며 水産加工部門이 가장 작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설명한 石油製品의 波及效果는 養殖部門이 가장 작다는 사실과 對照되고 있다. 水産養殖部門 生産費 중에서 賃金으로 支出되는 比重이 크다는 것은 養殖業이 勞動集約度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반해 水産加工業은 보다 資本集約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勞動係數를 이용한 水産業의 雇傭構造 分析

<表 8>에서 勞動係數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一定期間 生産活動에 從事할 勞動量을 產出量으로 나는 係數로서 한 單位의 生産(여기서는 經常價格으로 百萬元)에 필요한 勞動量을 의미하며 就業係數와 雇傭係數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就業係數라 함은 한 單位의 生産에 필요한 被傭者, 事業主 및 無給家族勞動者를 합한 就業者數의 勞動量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雇傭係數는 被傭者만에 대한 개념이다. 表에 의하면 1975年 全産業平均就業係數는 0.5048人, 水産物部門은 0.5423人, 水産物加工部門은 0.3421人이다. 즉 水

表 8 部門別 就業者數와 勞動係數

	1970年						1973年						1975年					
	就業者數(人)			勞動係數(人/百萬원)			就業者數(人)			勞動係數(人/百萬원)			就業者數			勞動係數(人/百萬원)		
	無從業者數	給被備者數	計	就業係數	雇傭係數		無從業者數	給被備者數	計	就業係數	雇傭係數		無從業者數	給被備者數	計	就業係數	雇傭係數	
全產業	5,583,750	3,628,750	9,212,500	1.9467	0.7668		5,566,300	4,103,600	9,669,900	0.9494	0.4029		5,613,100	4,983,670	10,596,770	0.5048	0.2374	
水產物	56,800	121,200	178,000	2.7075	1.8435		53,000	119,500	172,500	1.0010	0.6928		39,900	131,450	171,350	0.5423	0.4160	
水產加工	8,200	14,400	22,600	1.1112	0.7081		10,300	18,100	28,400	0.7170	0.4570		8,460	21,710	30,170	0.3421	0.2462	

資料：韓國銀行, 「調查月報」, 1973. 11, 1975. 11, 1978. 4에서 作成.

水產物部門은 全產業平均就業係數보다 조금 높고, 水產加工部門은 오히려 全產業平均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 就業係數의 年別變動狀況을 보면 全產業平均就業係數는 1970年의 1.9467人에서 1973年에 0.9494人, 1975년에는 0.5048人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水產物 部門은 同期間 2.7075人, 1.0001人, 0.5423人의 變動을 보이고 있으며, 水產加工部門도 同期間 1.1112人, 0.7170人, 0.3421人으로 점차 그 절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또 雇傭係數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部門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單位生産에 필요한 勞動量의 減少를 보여주는 것으로 全產業에 걸쳐 勞動生産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된다. 이 勞動生産性은 勞動係數의 逆數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하여 보면 水產物部門 1970年 勞動生産性을 기준으로 하여 1973年은 170.5%, 1975년에는 399.3%의 증가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勞動係數가 全產業平均보다 클 때 勞動集約的이고, 그 반대의 경우를 資本集約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水產物部門의 경우 1970年만 하더라도 勞動集約的인 性格이 강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꾸준한 資本制化의 推進, 즉 漁船의 動力化 및 總噸數의 增大, 漁具와 漁法의 機械化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한편 就業增加率은 生産增大에 따르는 勞動需의 增加를 나타내며, 그 產業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중의 성장, 停滯, 後退狀態를 나타내는 한 指標로 이용할 수 있다. <表 8>을 보면 全產業의 경우 1970年 就業者數 9,212,500人을 基準으로 할 때 1973年, 1975年の 就業者數는 각각 50%, 1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 水產物部門의 경우는 오히려 그 비율이 1970年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3%, 4%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반면 水產加工業은 약 26%, 34%의 就業者數 增加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아 水產加工을 제외한 水產部門은 斜陽化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勞動係數를 이용하여 몇 가지 분석을 행하여 보았다. 그 결과 水產業은 就業者數가 점차 減少하고 있으나 勞動生産性은 꾸준히 上昇하고 있어, 雇傭構造의 改編狀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生産性의 문제에 있어서 其他의 產業部門에 비해 낮으므로 이러한 構造變動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3. 被備者報酬의 適正分配

<表 7>의 被備者報酬額을 <表 8>의 水產物部門의 被備者數로 나누어 계산한 被備者 1人當報酬를 보면 1970年에 19.3萬원, 1973年에 31.6萬원, 1975年에 63.9萬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1970年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1973年에는 63.7%, 1975年에는 231.1%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마다 被傭者報酬額이 커진다는 것은 일부 인플레이션 효과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全産業을 통해 勞動生産性이 向上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그 上昇幅이 勞動生産性의 上昇幅에 비하여 더 크다, 작으나 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이다. 이때 물론 兩者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被傭者報酬가 分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에서 水産物部門의 勞動生産性은 1970年을 기준으로 하여 1973年에 170.5%, 1975年에는 399.3%의 向上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반면 被傭者 1人當報酬는 1970年을 기준으로 1973年, 1975年에 각각 63.7%, 231.1%의 증가를 가져와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못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75년까지 産業聯關表에 의해 계산한 被傭者報酬는 同期間의 勞動生産性 向上에 대응하여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適正水準에서 그 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V. 要約 및 結語

이상에서 水産業 各部門에 있어서 石油製品과 被傭者報酬가 生産費에 미치는 영향 및 그 變動狀況, 其他 여러 事實을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간단히 考察하여 보았다. 이를 다시 要約컨대, 石油製品이 미치는 영향(波及效果)을 水産漁獲部門에서는 크게 받고 있으나, 養殖部門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바, 이는 그 部門의 성격상 水産漁獲部門은 養殖部門에 비하여 石油製品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제 2차 오일 쇼크로 인하여 漁業用免稅油價를 58.5% 引上한 것은 水産加工을 제외한 水産部門에 11%의 追加

負擔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번의 제 2차 오일 쇼크로 一般石油製品 59.2% 引上和 漁業用免稅油類 58.5% 引上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는 水産業部門에서 0.2%, 水産業 이의 部門에서 10.8%로 總 11%를 나타내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油類波動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명백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石油製品價格 上昇에 대한 충격을 가능한 한 적게 받기 위해서는 水産業 全般에 걸쳐 石油製品의 소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水産業 從事者 스스로 經營合理化를 통한 生産性提高 등으로 그 負擔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被傭者報酬가 生産費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部門別로 보면 養殖部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水産漁獲部門, 水産加工部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각 部門의 勞動集約度 및 資本集約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勞動을 機械로 代替시켜 資者集約度を 높이는 것이 유리하므로 養殖部門뿐 아니라 全水産部門에 있어서 資本制化가 가능한 部門에 대해서는 資本化比率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 水産部門에 있어서 被傭者報酬의 分配狀況을 보면 1975년까지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대응한 適正水準이 되지 못하고 低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水産部門에 있어 勞動生産性은 계속 上昇하고 있으나 그 就業者數는 減少傾向에 있으므로 水産業 内部에 構造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일시적으로 失業問題가 야기될 수도 있으나 他産業과의 生産性隔差, 報酬水準의 隔差로 이러한 水産業構造의 再編成過程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